

## ●어떤 검사를 받는가

### ① 문진, 시진, 타진, 촉진, 청진

노련한 의사라면 인간의 5감에 의한 진단으로 심장병의 90% 이상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의 검사를 겸함으로써 진단을 내린다.

### ② 흉부X-선 검사

심장의 크기나 심부전의 상태를 한눈에 알 수 있다. 흉통이나 숨이 차는 원인이 잘못 섭취한 음식물이 기관내에 끼인 때문일 때도 있다.

### ③ 심전도

심장이 수축할 때마다 일어나는 미세한 전기적 변화를 그래프에 의해 기록하는 방법이다. 심장에 이상이 있으면 그 파형에 특유의 변화가 보이기 때문에 이상한 곳을 쉽게 알 수 있다.

### ④ 운동부하 테스트

인공적으로 심장에 부담을 주어 그 심전도를 기록하는 방법이다. 계단(2단)으로 된 발판을 오르내리는 숙달 테스트나 자전거 발젓기 같은 운동력테스트, 벨트 콘베어의 위를 걸어보는 동작테스트 등이 있다.

### ⑤ 혈액 검사

혈액에 포함된 여러가지 성분을 분석함으로써 몸의 상태나 질병의 가능성을 알아 볼 수 있다. 특히 동맥경화를 점점 악화시키는 고지혈증이나 당뇨병의 유무, 그리고 그 정도를 알아보는 데에 중요하다.

### ⑥ 혈압측정

혈압이 높으면 심장에의 부담이 커진다. 정기적으로 자기의 혈압을 측정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⑦ 심음

초음파를 심장의 위쪽으로부터 접촉시켜서 심장이 움직이는 상태나 심근의 두께, 판막의 질환 등을 역학적으로 알 수 있다. 검사는 간단하며 아무 통증도 없는 안전한 검사 방법이다.

### ⑧ 장시간 심전도(호울더 기록)

호울더의 심전도계라는 포터블 심전도계를 24시간 몸에 붙여서, 부정맥이 생기는 양상과 협심증 발작을 알아본다.

### ⑨ 그밖의 심장 정밀검사

방사선 물질(RI)을 사용하여 심장의 활동을 알아보는 방법이나, 팔뚝이나 대퇴동맥으로부터 카르테르라는 가느다란 관을 삽입해서 심장이나 관동맥의 양상을 X선으로 촬영하는 심장 카르테르검사, 관동맥 조영, 심실 조영 등이 있다.

(다음호에 계속)